

응구기의 소설에 나타난 증오와 사랑의 알레고리

서 은 주
(전북대학교)

Seo, Eunjuo. "Allegory of hate and love in Ngūgī wa Thiong'o's novels."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7.2 (2021): 41-65.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features in Ngūgī's novels. Ngūgī employs the use of allegory as a literary tool to reveal the colonial and post-colonial history in his nation, Kenya. His allegory introduces "love and hate" relationships for symbolic representations of what happened during that period of time. Hostile hateful relationships are caused by the aftermath of the imperialists' rules but romantic relationships are also made at the same time. The image of the love and hate which the characters convey in Ngūgī's narrative is a coded way of describing that historical period, along with hope for the future. So their various relationships are associated with oppression, repression, betrayal, hope, desire, and rebirth, and can symbolize two-faced situations between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the ruler and the ruled,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exploiter and the exploited. In Ngūgī's works, such conflicting positions between the main characters suggest that individuals can not be emancipated from the social forces which affect them. For Ngūgī, if abhorrent relationships are allegory of the decadent state of his country which exiled him, then romantic relationships are allegory of his cherished love for his count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Ngūgī wa Thiong'o, Kenya, relationship, allegory, love and hate

I. 서론

아프리카 케냐 작가인 응구기 와 시옹오(Ngūgī wa Thiong'o, 1938-)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관계에 대해 증오와 사랑의 이미지를 알레고리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사회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된 알레고

리 형식”(왕은철 66)이다. 응구기는 아프리카의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분의 상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아 등장인물 간에 적대적인 증오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증오 속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전개되는 남녀(애정)관계의 사랑 이야기가 응구기의 문학을 지배적으로 차지하고 있다. 응구기가 이처럼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케냐 사회의 식민지 이전 시대, 식민지 시대, 신식민지 시대 상황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는 양립할 수 없는 “완전히 모순되고 이율배반적 관념인 증오와 사랑”(Rayzman 5)의 관계성을 알레고리로 삼아 그의 사상을 담론화하고 있다.

알레고리의 근원은 고대 철학자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에서 찾을 수 있다.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오직 동굴 벽면에 비친 그림자만이 진실한 세상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 진실은 그림자를 만들어 낸 실체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동굴 밖의 세상이다. 응구기는 동굴 속의 죄수들과 다를 바 없이 미개하고 열등하다고 인식되어온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을 형상화하기 위해 소설이라는 도구를 활용한다. 그리고 그는 소설을 통하여 그동안 제 1세계 작가들이 실추시킨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에 대한 이미지를 격상하기 위해 시도한다. 그는 이런 그릇된 이미지가 본질에 대한 인식의 관념적 평가로 “도덕적 판단과 연관”(Royzman 24)되어 있음을 알리기 위해, 플라톤의 동굴이나 선사시대처럼 절대적인 진실도 보편적인 개념도 부재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틀에 갇혀 있는 케냐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응구기의 소설은 “알레고리가 영문학에 기여한 많은 공헌 중에서도 도덕극의 구조가 가장 큰 공헌”(맥퀸 89)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도덕적 알레고리의 전형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지 오웰(George Orwell)의 『동물농장』(*Animal Farm*)은 영국의 제국주의자들이 원주민에게 가하는 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도에서 제국 경찰이었던 오웰은 영국 제국의 폭정과 억압을 목도하고 제국의 통치 제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깨달은 후 식민지의 국가, 사회, 문화를 비판하기 위해서 동물을 알레고리의 소재로 삼았다. 반면 “콧시(J. M. Coetzee)는 『동물로 산다는 것』(*The Lives of Animals*)에서 인간의 윤리적인 삶을 비판하기 위해서 동물을 알레고리화”(Oerlemans 296)했다고 평가받는다. 동물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들과 달리 응구기는 원주민

을 “도살을 위한 염소”(Devel 206)에 빗대고 “그들과 연관된 상호관계를 알레고리로 삼아 식민국가와 사회 현상”(Ogude 110)을 묘사하고 있다. 그것을 반영하듯 응구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흑과 백으로 엄격히 분열된 채 증오를 낳는 적대적인 관계와 사랑을 품은 남녀관계로 나타난다. 응구기는 등장인물들의 관계에 증오와 사랑이라는 “알레고리를 사용하여 잠재력을 가진 아프리카 문학”(맥킨 84)의 기초를 닦았다. 이것은 아프리카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들의 역사적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응구기의 알레고리 표현 방식이다.

이러한 응구기의 방식은 독일 철학자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에 의해 재해석된 독창적인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벤야민은 파괴된 자연이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몰락한 역사로 읽히기를 요구한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표현 수법을 넘어서 해석학적 읽기로 전환하는 알레고리의 특성”(최문규 169)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벤야민이 주장하는 해석학적 읽기 측면에서 보면 응구기의 소설에는 몰락한 국가를 대신하는 알레고리의 특성이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경우가 여성의 매춘화이다. 케냐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역사가 “협박당하는 성적 관계”(Petal 21)에 놓인 여성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구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매춘녀의 모습은 국가의 매춘화, 즉 “우리(케냐 국민)는 모두 매춘되었습니다”(Petal 240)라는 말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응구기에게 억압자, 가해자, 행위자, 상위자에 의해 파괴된 여성이나 몰락한 매춘녀의 모습은 제국에 의해 착취된 케냐 원주민의 초상화와 다름이 없다.

응구기에게 여성과 매춘녀는 억압과 착취가 난무한 케냐 사회를 축소한 본보기이며, 그들에게 가해진 억압은 피비린내 나는 식민지 침략 정책의 일환을 알레고리로 표현한 것이다. 그들의 순수함과 나약함과 소박함은 식민지 이전 케냐 기쿠유(Gikuyu) 부족의 모습에서 식민지 수난으로 인해 억압된 현실을 탈피하려는 강한 욕구를 발산하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임스 오구드(James Orgudu)는 “응구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이 작가가 갈망하는 국가를 대신해서 민족, 국가, 전통, 근대, 배신, 희망, 재생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적 특징이 있다”(109)고 한다. 응구기가 “바라던 국가를 쟁취하기 위한 각축의 장이 되는 여성 도상학을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연관된 남녀관계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수단”(Ogude 109)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소설에 특히 많은 여성이 등장하고 그들이 중심이 되거나 주인공이 되는 이유기도 하다.

국가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은유어로 제시된 여성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관계적 알레고리”(Ogude 109)의 의미를 탐색해보기 위해서는 응구기의 작품을 연대기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케냐의 식민지 시대와 식민지 이후 신식민지 시대의 사회 현상이 어떠한 관계를 만들어내는지와 그 관계의 변천 과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침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략자와 부족민과의 충돌을 주제로 하는 소설로는 『울지 마, 아이야』(*Weep Not, Child*) (1964), 『셋강』(*The River Between*) (1965), 『한 톨의 밀알』(*A Grain of Wheat*) (1967)이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철수한 이후인 신식민지 사회의 혼돈을 주제로 하는 소설은 『피의 꽃잎들』(*Petals of Blood*) (1977), 『십자가 위의 악마』(*Devil on the Cross*) (1982)이다. 응구기는 구체적이고 구도적으로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관계를 사건 사고와 연계짓고 있다.

응구기는 특히 외부적 사회 현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관계, 주종관계, 동료 관계, 남녀관계, 부부관계, 연인관계, 애착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등 각종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 공존하고 있는 중요와 사랑이 빚어내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심도 있게 그려낸다. 그의 소설은 아프리카 식민지의 역사와 사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그들의 관계는 때로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이어서 적대적인 중요를 낳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예언하기도 한다.

II. 식민지-중요를 낳는 적대적인 관계

응구기의 소설은 케냐 식민지와 신식민지 사회를 배경으로 실존했던 원주민들의 유린된 상황을 재현하고 그들의 유대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감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영국 제국의 식민지 통치시대를 경험한 아프리카의 사회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 현상이 개인의 감정과 행동에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음을 의미한다. 프란츠 파농(Franz Fanon)은 “증오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양성된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난다”(Fanon xix)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응구기는 이 이론을 등장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작용하는 방향에 중심을 둔다. 그중에서도 전반적으로 강하게 형성되는 구조는 증오를 초래하는 적대적인 악의 관계이다.

증오란 몹시 싫어하는 감정을 말하는데, 응구기는 추상적인 증오의 개념에 형태를 부여하듯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설정한다. 그들의 관계는 식민지를 지배한 영국 제국주의자와 원주민과의 충돌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관계로 나타나며, 대개 지배 주체와 하위 주체, 강자와 약자,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부자와 빈자, 무기를 가진 자와 무기도 없는 자, 먹는 자와 먹히는 자로 이분화되어 증오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증오에 대해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흄, 다윈의 증오에 대한 고전적인 표현 방식은 서로 매우 다르다. 데카르트에게 증오는 나쁜 무언가로 대상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철수하려는 욕구였다. 스피노자에게 증오는 외부 요인에 대한 인식이 수반되는 통증(슬픔)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증오의 뚜렷한 특징은 괴로움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시간이 지나도 치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소멸을 위해 투쟁해야 하지만)이었다. 흄은 사랑이나 증오는 절대로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둘 다 감각의 내적인 직관에 의해 단순화할 수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다윈은 또한 증오를 뚜렷하게 걸로 나타나는 징후가 없이 본 모습을 분노의 방식으로 드러내는 특별한 감정으로 보았다.

The classic formulations of hate, those by Aristotle, Descartes, Spinoza, Hume, and Darwin, are notable for their contradictions. For Descartes, hate was an awareness of an object as something bad and an urge to withdraw from it. For Spinoza, it was a case of pain (sadness) accompanied by a perception of some external cause. For Aristotle, the distinguishing phenomenological fact about hate was that it is pain-free (in addition to being incurable by time and striving for the annihilation of its object). Hume argued that neither love nor hate can be defined at all, because both are

irreducible feelings with the introspective immediacy of sensory impressions. Darwin also saw hate as a special feeling, one that lacks a distinct facial sign and manifests itself as rage. (Royzman 4)

고전 철학자들이 정의한 증오의 감정이란 무언가의 나쁜 인식을 주는 것으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픔과 슬픔이 동반되는 분노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들을 연구한 맥컬리 로이즈만(McCauley Royzman)은 “외부 요인에 의해 생기는 일련의 고통인 증오의 감정은 치유 불가능하기에 투쟁해서 제거해야 할 나쁜 것”(4)이라고 제시한다. 응구기의 소설에는 철학자들이 단순화하여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분노의 감정과 로이즈만이 제안한 제거해야 할 악의 대상에 대한 적대적인 관계가 잘 드러나 있다.

응구기의 소설에서 원주민들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제국주의자들이 처음 기쿠유 마을에 도착하면서부터 극한으로 치닫는다. 식민지 초기에는 제국주의자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제국주의자들을 따르는 원주민을 내세워 원주민을 압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간접 통치 방식은 “흑인을 이용해 흑인을 관리하고 흑인이 흑인을 죽이는”(Weep 97) 상황을 초래했다. 응구기의 초기 작품인 『셋강』에는 이러한 원주민 간의 충돌과 이로 인한 그들의 내외부적 상처가 잘 묘사되어 있다. 스토리는 평온한 산마루와 계곡이 있는 기쿠유 부족 마을에 제국주의자들이 도착하면서 공동체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쿠유 부족 공동체는 제국의 기독교를 따르는 마을과 부족의 전통을 고수하는 마을로 갈라지고 이념의 차이에 의해서 틈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틈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마쿠유 마을의 지도자 조슈아(Joshua)와 부족의 전통을 지키는 카메노 마을의 추장인 체게(Chege)의 대립적 관계로 이어진다.

가난하고 힘이 약한 조슈아는 제국의 후원을 받아 “두려움에서 해방된 용감한 전도사”(River 29)가 되어 부족의 전통을 부정하며 체게에 맞선다. 그는 “주님의 의지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인간의 행동은 허영”(Petals 195)이라 여기며 “세상의 구원자인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온몸을 떨고 기뻐하며 세례”(River 28)를 받는다. 조슈아가 기뻐하며 찬양하는 신은 제국주의자의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근본적으로 제국의 힘에서 비롯된 그의 자신감은 “위험한 인물의 어떤 측면을

내사함으로써 자신의 힘이 세졌다는 지각”(칸 167)으로 인해 부족의 전통과 부족의 대표인 체계에 맞설 수 있게 만든다.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의 본모습을 감춘 채 원주민을 포획하고 조정하기 위해 조슈아를 이용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조슈아는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역설적이게도 자신의 부족민에게 힘을 행사하며 부족민들과 적대적으로 대립한다. 달리 말하면, 식민지 초기 기쿠유 부족민들의 다툼은 제국주의와 원주민의 전쟁을 암시하는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다.

응구기는 이러한 식민지 상황에서는 누군가의 온전한 행복도 완전한 불행도 없으며 아무도 조화롭게 화합할 수 없다고 여긴다. 그는 조슈아의 딸 무쓰니(Muthoni)를 통해 그들에게 닥쳐올 암울한 미래를 예시한다. 아버지 조슈아를 따라 기독교도가 된 무쓰니는 “부족의 전통 의식인 할례를 받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거듭나기”(River 44)를 희망한다. 할례받은 기독교도인 무쓰니의 몸은 두 문화를 수용하는 화합의 장을 상징한다. 하지만 식민지 체제에서 부족민들이 두 문화를 수용하는 게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희망도 없다는 작가의 회의론적 입장”(Macharia 13)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듯 무쓰니는 할례 이후 죽음을 맞이한다. 할례받은 기독교도인 무쓰니의 죽음은 “부족의 전통과 순수함을 보관하는 역할”(Ogude 110)을 하는데, 그로 인해 두 마을 사람들과 지도자들의 적대적 관계는 극대화된다.

원주민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응구기의 두 번째 소설 『울지 마, 아이야』에서 자코보(Jacobo)와 응고토(Ngotho)의 대립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코보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원주민을 관리하며 자치 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제국주의자의 앞잡이다. 이와 달리 응고토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식민지 이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부족민들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서로를 증오할 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은 “백인에게 복종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자치 대장과 케냐의 독립전사”(Indangasi 198)로 극명히 갈리어 대치하게 만들었다. 응고토는 어느 날 제국의 심부름을 하는 자코보의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코보라는 악의 대상을 살해한다. 그런데 응고토 또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해당하게 된다. 응구기는 사상과 관념이 다른 이들이 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살해는 증오가 증오

를 낳는 식민지 구조를 해결하고 “독립을 쟁취하는 데 꼭 필요한 일”(A Grain 175)임을 밝힌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그의 세 번째 소설 『한 톨의 밀알』에 등장하는 카란자(Karanga)와 기코노(Gikonyo)와의 관계에서도 이어진다. 그들은 같은 마을에서 친구로 자랐지만, 비상사태 시기에 카란자는 제국주의자를 위해 봉사하는 자치 대장이 되고 기코노는 독립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수감된다. 두 사람은 여자 친구 뭉비(Mumbi)를 사이에 두고 더욱 격하게 충돌하는데, 응구기는 “용감한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을 때 비겁한 사람은 살아서”(A Grain 169)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혼돈의 시기를 재현하고 있다. 카란자는 사랑하는 뭉비를 지켜주기 위해 동료 를 배신하고 그녀 곁에 남는 데 반해 기코노는 국가를 위해 투쟁하다 투옥된다. 몇 년 후 기코노는 감옥에서 살아 돌아오고 마을 사람들로 부터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영웅으로 추앙받는다. 하지만 사실 기코노는 뭉비 곁으로 돌아오기 위해 동료를 밀고하고 그 보상으로 풀려난 것이다. 뭉비를 지키기 위해 기코노와 카란자는 유년 시절(식민지 이전)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결투를 벌이곤 했다. 하지만 식민지 상황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간접 통치 방식인 “흑인이 흑인을 관리하고 죽이는”(A Grain 97) 시스템은 제국주의자를 겨냥해야 할 그들의 분노가 서로를 공격하도록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의 권력 구조에 대하여 응구기는 그 구조의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부터 증오를 낳는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것은 지배자와 상위자인 남성 가장이 가정에서 가족을 통솔하는 가부장 제도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이기도 하다. 전통적으로 기쿠유 부족 사회는 가족 구성원을 지배하는 남성 가장에 의해 여성들은 억압과 폭력과 착취 상태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었다. 응구기의 소설에는 여성 억압의 일화가 세밀하게 묘사되는데, 특히 은조로 게, 기코노, 카란자, 무호야(Muhoya)의 어머니들은 가부장제에서 대표적인 여성 폭력으로 알려진 복혼제의 희생자들로 묘사된다. 케냐 사회에서는 소나 염소를 거래해서 부인을 얻는 것이 가능했기에 여성은 “재산과 같은 소유물”(Bolat 34) 이었다. 기코노와 카란자의 어머니는 남편이 거느린 여러 부인들 중 한 명이었고 아이를 출산한 후 그들은 아이와 함께 집에서 쫓겨난다. 무호야는 “어머니가 노예 상태를 지켰듯이 수많은 케냐인이 자부심을 품고 노예 상태를 유지하려 했

다”(A Grain 241)고 분개한다. 그들이 식민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어야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 사회 현상은 기쿠유 부족의 가부장 제도와 맞물려 여성과 아이들에게 이중적인 억압을 양산했다.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인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식민지 남성들은 여성들을 속박했다. 인간관계의 힘을 악용한 이들의 행위는 “사랑도 애정도 없는 상대방에 대한 부당행위”(Sadek 172)이다. 제국주의자들의 폭력은 식민지인들을 향했고, 식민지 남성들의 폭력은 그들의 여성과 아이들을 향했다. 그들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가해진 두 힘(제국과 남성)의 합력은 그들이 “사육되는 짐승이나 가축”(Mies 16)처럼 “이득을 위한 억압적 관계”(Sadek 173)로 이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차별적인 문화와 노동 착취를 위한 “숙임수”(Mies ix)를 쓰는 이들을 향해 증오의 감정으로 가득 차 있다.

증오에 대하여 데카르트는 “무엇인가 나쁜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철수하려는 욕구”(Royzman 4)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응구기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의 관계를 예시로 들어 이러한 증오의 감정을 형상화한다. 『한 톨의 밀알』에 독립전사로 등장하는 R장군(무호야)의 아버지는 “비열한 범죄자이자 난폭한 폭군이였다”(A Grain 241).

어린 무호야는 집에 왔고 그의 아버지가 자신이 즐기는 게임에 빠져있는 것을 알았다. 갑자기 그 젊은이는 그 순간이 왔다고 느꼈다. ‘당신의 목숨이 소중하다면 그 녀에게 다시는 손대지 마세요.’라고 그는 소리쳤다....무호야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그를 때렸다. 증오와 두려움에 싸여 지냈던 세월이 그를 무서운 희열에 들뜨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다.

Muhoya, a young man had come home and found his father at his favourite game. Suddenly the young man felt the moment had come. ‘If you value your life,’ he cried, ‘don’t touch her again.’...He caught his father by the arm and hit him. The years of hatred and fear made him delirious with a fearful joy. Father and son were locked in a life-and death struggle. (A Grain 241)

어린 무호야는 제국에 유린된 식민지인과 같이 힘이 없는 약자였기에 아버지의

폭력을 참아왔다. 성인이 된 무호야에게 억눌려있던 폭력의 경험은 이제 아버지를 향하고, 그는 아버지를 때리며 회열을 느낀다. 이처럼 응구기의 소설은 증오를 낳는 적대적 관계가 강자와 약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전체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관계는 식민지 상황을 배경에 두고 있다. 특히 이 소설의 배경이 케냐의 독립 일을 얼마 앞둔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성인이 된 무호야의 행동은 식민지인의 억눌렸던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호야에서처럼 식민 상태의 억압이 계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인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III. 신식민지-혼란과 악의 처단

응구기의 네 번째 소설 『피의 꽃잎들』에서는 적대적인 관계 구도가 이전의 어떤 소설보다 더 복잡하고 그 대상을 향한 증오의 감정 또한 혼란스럽게 얽혀있다. 식민지 독립 이후 신식민지 사회의 혼란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서 주요 인물들의 관계 설정은 빈자와 부유한 자, 즉 “피해자와 파괴자”(Cook & Okenimkpe 90)로 이분화되어 있다. 피해자는 노동자와 농민, 가난한 지식인인데, 구체적으로 창부 완자(Wanja), 교사이자 독실한 기독교도 무니라(Munira), 소상인 압둘라(Abdulla), 자격증 없는 교사이자 노동 조합원 카레가(Karega) 등이 있다. 반면에 파괴자는 “아프리카의 부당 이득자들”(Moving 65)인 동시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Petal 192)로 교육자이자 사업가인 추이(Chui), 거물 사업가인 호킨스 키메리아(Hawkins Kimeria), 교육 사업가인 음지고(Mzigo) 등이다. 응구기는 “가난이 죄고 부자가 아니면 모두 죄인”(Petal 38)일 수밖에 없는 신식민지 사회를 재현하기 위해 “완자, 무니라, 카레가, 압둘라로 구성된 노동자 영웅집단과 이들을 착취하는 추이, 음지고, 키메리아로 구성된 악당집단으로 집단화”(Roos 156)된 적대적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두 집단을 연계하는 주인공 완자는 모든 남성과 성적 관계를 맺는 창부이다. 그녀는 부자와 빈자, 상위자와 하위자, 파괴자와 피해자를 연결하는 “재집결지 역할”(Ikiddeh 9)을 맡고 있다. 그녀는 “인간관계에 대한 그녀의 재능을 이용하

여 기쁨을 가져다주는 직업”(Cook & Okenimkpe 95)인 매춘을 통해야 만이 부자, 상위자, 파괴자 집단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고, 또한 “그들 위에 설 수 있음”(Petal 293)을 알고 있기에 결코 매춘을 벗어날 수 없다. 아프리카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의존적이어서 매춘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는 그간의 보편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응구기는 완자의 매춘 행동이 “복수의 무기”(Roos 165)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킨다. 모든 남성을 수용할 수 있는 창부 완자의 몸은 “악육강식이 지배하는 동물의 세계처럼 먹거나 먹히는 게 순리”(Petal 294)인 악순환이 지속되는 신식민지 사회의 일면이다. 응구기는 창부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집단의 적대적 관계를 증폭하여 보여주는 동시에 식민 상태인 창부의 행보에 의미를 더한다.

응구기는 유린당한 창부에게서 식민 상태에 있는 모든 핍박받는 이들의 모습을 떠올린다. 특히 『피의 꽃잎들』은 영국 제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케냐가 진정한 독립을 쟁취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며, 식민지 독립 이후 부와 권력의 이동성에 관심을 가진다. 이는 신식민지 사회에 새로이 등장한 “부유한 아프리카인이 가난한 아프리카인에게 적용하는 인종차별정책”(Weep 64)의 모순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완자의 스토리를 살펴보면, 그녀는 학창시절에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보다는 돈 많은 노인을 만나 그의 유혹에 넘어가 임신을 하게 된다. 모든 교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로 그녀는 돈 많은 노인에게 버림받자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그녀는 “관습과 도덕이 붕괴한 사회”(Mwangi 31)에 아무런 대책도 방어능력도 없이 노출된 채 “살을 뜯어 먹히거나, 피를 빨아 먹히는”(Devil 175) 창부가 된다. 그녀는 “사회적 식민주의 이론에 의한 먹이사슬의 생태 피라미드”(Nwankwo 120)에서 녹색 식물과 같은 하위 그룹에 속한다. 스피노자가 증오의 감정이 “외부 요인에 의한 통증”(Royzman 4)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바로 그녀에게 해당한다.

완자가 품은 증오의 감정은 그녀의 유년 시절인 신식민지 사회 초기부터 시작되었고, 그 감정은 가정 안으로 더 잔혹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완자는 어린 시절 부모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그녀의 부모는 소원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재결합하기 위하여 딸 완자를 이용했다.

부모님은 나를 방에 가두고 때렸어요. 아버지는 혁대로 때리고 어머니는 물건을 묶어서 끌고 다닐 때 쓰던 소가죽 끈으로 때렸어요...나는 울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은 그들을 더 화나게 했어요. 이제는 나를 울게 하려고 때리더군요...나를 때리는 방식에도 두 사람이 뒀가를 짜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They locked me in my room and they both beat me, my father with his belt and my mother with a cowhide strap we used for tying and carrying things...I was determined not to cry. This seemed to add to their anger. They were now beating to make me cry...I also felt that the way they beat me-it was as if they were working out something between them. I had known that my father and mother were drifting apart. (*Petal* 38)

완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연합하여 완자를 폭행한다. 『피의 꽃잎들』 이전의 작품에서는 아버지가 강자로 어머니인 약자를 억압하고 있다면, 제국으로부터 독립 이후의 신식민지를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힘 있는 신식민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합하여 그들보다 약자인 완자를 억압한다. 완자는 그날 밤늦도록 부모님의 속삭임을 들었고 그들에게 반항심을 느꼈지만, 어린 완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에 “고통을 영혼과 마음에 담아”(Petal 38) 둔다. 그렇게 완자는 도시로 가서 매춘녀가 되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창녀”(Petal 336)라고 부른다. 그러던 어느 날 완자는 도시에서 짐을 모두 도둑맞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보자마자 돈이 있냐고 묻는다.

아버지가 완자를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돈 좀 있니? 5실링? 20실링?” 그녀가 핸드백을 들자 갑자기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의 쇠약해진 손이 기대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과하게 칭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노년에 그녀가 효도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자기를 속여서 돈을 빼앗아 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이제 남은 사람은 완자뿐이라고 했다. 갑자기, 지폐를 꺼내던 그녀의 손이 굳어 버렸다. 그의 눈에는 어떻게 벌었느냐에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그녀가 좋게 보인다는 걸까?...“아무것도 없네요.” 그녀가 핸드백을 닫으며 말했다. 그러자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다. 자식들이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걸 진작부터 알았다면서...

He looked at her again. He said: 'Have you any money? Five shillings? Twenty shillings?' She picked up her handbag. She saw him suddenly beam bright on his face, his emaciated hands were trembling with eagerness. He started praising her in a most exaggerated tone, saying that he knew all the time she would later be his blessing in his old age. He complained to her how her mother treated him, cheating him out of his money...Only Wanja was left. And suddenly her hands became frozen in the very act of pulling out a note. So only money, no matter how it was got, could redeem her in his eyes?...She said: 'I have nothing!' and she shut the handbag. Then he started condemning everybody: he had known that all his children were useless... (*Petal* 336-337)

한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합해서 완자를 폭행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돈을 따라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난다. 이러한 완자의 가정사는 물질만능주의에 찌든 케냐의 신식민지 사회를 짐작하게 한다. 완자는 유년 시절 아버지의 폭력을 기억하며 그에게 빈손임을 증명해 보이고 설령 돈이 있어도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한다. 이러한 완자의 행동은 “부모의 저주가 낳은 결과”(Petal 336), 즉 케냐의 신식민지를 배태하고 배양한 식민지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식민지의 물질 만능사회의 분위기는 응구기의 다섯 번째 소설이자 첫 번째 기쿠유어 소설인 『십자가 위의 악마』에 이르러 절정에 이른다. 응구기는 이 소설에서 “흑인 여성 노동자”(Wizard 428)인 완가리(Wangari)를 통해 개인의 가치와 자존감이 상실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녀는 축산업을 시작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지만 축산업에 기술이 없는 그녀는 가축들을 모두 잃게 된다. 그녀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은행은 대출을 담보로 한 그녀의 땅을 빼앗아 간다. 파산한 그녀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도시로 가고, 그곳에서 “나이든 흑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다리 벌리는 일이고 그 일에 전문적”(Devil 42)이라는 모욕을 당한다. 그리고 통행권 없이 시내를 배회했다는 “부랑자 범 위반”(Devil 43) 죄목으로 감옥에 수감된다. 완가리의 사연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신의 신체에서 살 1파운드를 떼어줘야 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에 나오는 안토니오를 연상시킨다. 그들의 일화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엄성이 거부당한

채 “돈을 위해 몸을 파는”(Devil 213)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 응구기는 자본이 지배하는 신식민지 시대의 무가치와 불평등에 맞서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피해자나 하위 그룹에게 있고, 그 기본권을 수호할 의무가 지배자와 상위자의 몫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응구기의 소설에서 연대기적으로 계속되고 증폭되어 온 등장인물들 간의 적대적인 관계는 『십자가 위의 악마』 후반에 이르러 드디어 악의 처단 방식으로 그 관계를 종식한다. 주인공 와링가(Wariinga)는 『피의 꽃잎들』의 완자와 마찬가지로 유년 시절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의 지략으로 이를 극복하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한다. 이후 와링가는 혼인을 승낙받기 위해 남자친구 가투이리아(Gatuiria)의 집을 방문한다. 그리고 그녀는 가투이리아의 아버지가 유년 시절 자신을 성적으로 착취했던 자기 딸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가투이리아의 아버지는 와링가에게 아들과 헤어지고 예전처럼 자기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애걸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심지어 그는 “와링가의 매력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는 욕정”(Devil 251)을 느끼며 그의 꽃이 되어 노년을 즐겁게 해달라고 자제력을 상실한 채 무릎을 꿇고 애원한다. 와링가는 타인의 삶을 강탈하고 정신적 노예로 삼은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가방에서 총을 꺼내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날”(Devil 422)이라고 하며 적대적인 악의 관계를 마감 짓는다. 응구기는 “전형적인 사회의 악에 대한 보복”(Cook & Okenimkpe 138)을 강조하며 와링가를 통해 이를 실행에 옮긴다.

결과적으로 응구기의 소설은 제국주의가 식민지 문화와 역사에 미친 선과 악의 문제를 도덕성과 연관지어 “개인적인 관계에 미친 사회적 영향”(Evans 136)으로 인해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는 “타락한 국가의 상태를 알레고리화”(Ogude 120)하고 있다. 응구기는 제국이 식민지에 심어놓은 사회화, 문화화, 문명화, 도덕화가 식민지인들에게 악의 전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증오를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단상들을 비중 있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그는 식민지에서 행해진 “분쟁과 살인과 전쟁과 피에 관한 모든 징후”(Petal 16)를 도덕성과 악의 긴장관계로 대립시켜 작품의 사건과 인물을 클라이맥스로 치닫게 한다. 그에게 식민지의 제국 문화와 역사의 진보는 그의 부족을 억압한 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IV. 이상적인 국가-사랑하는 연인관계

응구기의 소설은 등장인물들 간의 적대적 관계가 주된 흐름을 형성하는 가운데 “낭만적인 사랑”(Spivak 97)을 하는 남녀관계 또한 등장하기에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논하는 획기적인 작품”(Sadek 183)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의 초기 두 소설 『셋강』과 『울지 마, 아이야』에서는 식민지 사회에서 제국의 이념을 따르는 쪽과 부족의 전통적 이념을 고수하는 쪽으로 나뉘어서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부모들과는 달리 그들의 자녀들이 연인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응구기가 그들의 관계를 통해 “민족주의의 모순성을 화합하려는 시도”(Ogude 109)라고 할 수 있다. 오구드가 등장인물들의 “낭만적인 사랑이 응구기의 이상적인 국가를 상징하는 매개체”(Ogude 110)라고 주장한 것처럼 응구기의 소설은 생과 사의 전투를 벌이는 전쟁터에서 “남성과 여성이 화합”(Rutere 107)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셋강』에서 적대적 관계로 등장하는 조슈아와 체계의 관계는 무쏘니의 죽음으로 더욱 악화되었지만, 조슈아의 딸 남부라(Nyambura)는 체계의 아들 와이야키(Waiyaki)와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된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큐피드(Cupid)와 프시케(Psyche), 셰익스피어의 로미오(Romeo)와 줄리엣(Juliet)을 연상시킨다. 큐피드가 어머니 비너스(Venus)를 설득하고 마침내 축복받는 해피엔딩을 맞는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은 두 가문의 화합이 불가능함에 따라 죽음을 택한다. 설득이든 죽음이든 그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남부라와 와이야키는 타자의 문화를 거부하는 두 마을 주민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여기에서 응구기는 식민지 사회에 내재해 있는 “회복 불가능한 문화수용”(Indangasi 196)으로 인해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사회를 재현한다. 이들과 달리 응구기의 소설에서 연인관계를 맺고 있는 주요 인물들은 모두가 자의가 아닌 타인의 영향과 결정에 지배를 받는다.

연인관계를 통한 알레고리의 특징은 『울지 마, 아이야』에 등장하는 음위하키(Mwihaki)와 은조로게(Njoroge)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음위하키의 아버지 자코보는 영국 제국주의자들을 위해 원주민을 관리하는 자치 대원이고 은조로게의 아버지 응고토는 제국주의자들에게 땅을 빼앗기고 그들에게 저항하는 인물이다.

음위하키와 은조로게는 그러한 가족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게 된다. 물론 소설 초반에는 순수하고 낭만 가득한 그들의 사랑이 지속되고 해피엔딩으로 스토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게 하지만, 중반부에 들어 응고토가 자코보를 살해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지속 불가능한 비극임을 직감하게 한다. 그들의 관계는 제국과 부족의 조화로운 만남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며 시작했지만,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연인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마무리된다.

싸움의 당사자들과 기쿠유 공동체이자 함축적으로 상상되는 케냐라는 국가를 위협하는 비극을 직면하게 되는 도덕적 딜레마가 이 비극적인 연인관계 속에 요약되어 있다. 비극적인 이유는 식민지 경험이라는 자궁으로부터 자라나는 신생 케냐 민족 국가로 상징되는 순수한 사랑이 비상사태 기간의 폭력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나기 때문이다.

The moral dilemma facing the fighting sides and the tragedy that seems to threaten the Giguyu community and by implication the imagined Kenyan nation is encapsulated in this tragic romantic affair. Tragic because this innocent love, symbolic of the nascent Kenyan nation-state growing out of the womb of colonial experience, is shattered by the violence of the emergency period. (Ogude 111)

이처럼 소설에 등장하는 연인들의 사랑 이야기는 식민지 시대의 상황을 암시하듯 비극적이다. 낭만적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관계가 희망적이라면 국가의 미래도 희망적일 수 있기에, 응구기는 그들의 관계를 절대 희망적일 수 없는 식민지 케냐를 대신하는 비극적인 스토리로 알레고리화 하고 있다.

비극적이지만 일말의 희망을 암시하는 남녀관계는 응구기의 세 번째 소설이자 그의 최고작으로 꼽히는 『한 톨의 밀알』에 이르러 비로소 완성된다. 이 소설의 배경이 식민지 독립을 바로 앞둔 상황이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스토리는 여성 주인공 몸비를 중심으로 두 겹의 연인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몸비와 기코노, 몸비와 카란자의 삼각관계는 독립 이전의 비상사태 시기에 행해진 무질서한 사회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알레고리이다. 몸비는 기코노와 사랑에 빠지

고 부부관계를 맺지만 기코뇨가 영국 제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녀는 영국 제국을 위해 원주민을 관리하는 자치 대원인 카란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다. 몸비는 동료를 배신하고 제국의 자치 대장이 되어 그녀 곁에 머무는 카란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 몸을 허락한다. 그녀의 행동은 사랑이나 연민의 정이 아니라 “식량을 얻어서”(A Grain 166) 굶주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책임감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치 대장인 카란자가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행한 성적 행동이 몸비에게는 “삶을 파멸시킨”(A Grain 237) 권력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작동한 일종의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응구기에게 폭력에 유린당한 여성은 제국에 폭행당한 식민지국과 같은 맥락이다. 식민지를 그대로 답습한 신식민지를 풍자한 『피의 꽃잎들』의 주인공인 창부 완자에게서는 신식민지의 잔학무도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완자는 창부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남성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애정 관계를 맺는 “자유로운 사랑을 하는”(Sadek 184) 인물이다. 그녀는 자신을 억압하고 착취한 힘과 권력이 있는 남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매춘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직업을 이용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창녀”(VIP: Very interesting Prostitute)(Petal 76)다. 그녀는 도시에서 매춘 생활을 하다가 고향 일모로그에 돌아온 후에는 압둘라의 술집에서 여급으로 일한다. 압둘라와 학교 선생으로 부임해 온 무니라와도 점점 가까워지고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다. 완자는 그들의 관심을 고마워하면서 장난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무니라는 그녀와 같이 있는 게 좋고 새로운 기운과 보호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학교 일과를 마치면 그녀를 만나러 간다. 완자의 에너지와 열정은 “그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재주”(Petal 41)가 있고, 이를 이용해 “무니라와 압둘라와 가까워지고 그들을 그녀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그들도 그 상처를 체험”(Petal 41)하게 한다.

남성들은 완자의 상처를 공유하며 그들도 각자의 상처를 상기하는데, 이는 응구기가 부족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와 복혼제는 물론 제국의 유산을 물려받은 신식민지의 억압자들에게 대한 도전으로 여러 남성을 품을 수 있는 완자를 형상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식민지 독립을 기뻐할 틈도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한 신식민지 사회의 혼돈을 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암묵적인 의문을 완자에게 투사하고 있다. 완자가 “장립종 쌀을 1파운드만 가져다주세요. 오늘은 압둘라

가 나를 집에 데려다줬어요. 내일은 당신 차례예요. 압둘라 고마워요. 무니라 고마워요”(Petal 41)라고 정답게 말하면, 두 남자는 그 말이 각자 자기한테만 하는 말처럼 들린다. 완자의 행동은 케냐 여성들이 부족의 전통적인 억압에 더하여 “식민지와 신식민지의 힘든 상황의 지속으로 인해 낭만과 수치감이 소멸”(Bolat 35)하였기 때문이다. 응구기는 완자가 무니라와 압둘라는 물론 신식민지 사회를 억압한 정말로 중요한 “중역자들”(VIPs)(Petal 192)과 같은 여러 남성을 한 몸에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함을 결말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의 결말은 완자를 사이에 두고 무니라와 압둘라가 서로 질투하면서 결국 매음굴을 방화하는 장면을 그려낸다. 압둘라는 완자의 매음굴에 무니라가 다녀가는 것을 목격하고 시기심을 느끼고, 그녀의 매음굴을 즐겨 찾는 중역들을 질투한다. 완자는 모든 남성을 “늘 조건이나 동정심 없이 받아들이는”(Petal 310) 매춘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둘라는 “완자가 몸을 파는 일에 전적으로 뛰어들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굴욕감을 느끼면서도 그녀에게 우리는 운명이야, 나와 결혼해줘”(Petal 311)라고 간청한다. 이에 완자는 친구로 남아 소중한 우정을 지키자고 말한다. 압둘라는 완자의 매음굴을 찾는 이들을 처리하려고 마음먹고 칼과 성냥을 챙겨 다니며 그들을 살해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편 무니라는 완자가 압둘라에게 보여주는 대담함과 인위적인 수줍은 태도를 못마땅해하고 그들이 친밀하게 지내는 것에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어느 날 압둘라가 완자의 매음굴에 다녀가는 것을 보고 그를 살해하기 위해 불을 지르게 된다. 무니라는 “압둘라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생각만 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긴 셈”(Petal 338)이다. 방화를 통해 무니라가 끝내고 싶은 관계는 매음굴을 찾아온 신식민지 악을 상징하는 중역들을 겨냥한다. 완자는 무니라가 저지른 방화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화를 내야 할지 우러러보아야 할지, 비겁한 행동을 혐오해야 할지”(Petal 338) 망설인다. 하지만 사실 중역들은 무니라의 방화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완자가 중역들을 매음굴로 초대하고 부엌칼로 한 명씩 그들을 처단한 후에 방화가 일어난 것이다. 완자는 방화로 인해 증거가 사라지고 없기에 구태여 사실을 들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방화로 인해 살해되었다고 거짓 증언을 한다.

무니라는 방화 이후 불에 타는 완자의 매음굴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방

화 현장을 관망한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공격의 대상을 상징적인 악으로 간주함으로써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개입시키지 않는”(왕은철 83)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압둘라는 중역들을 처단하러 완자의 매음굴에 다시 돌아가는 중 방화를 목격하고 불길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은 완자를 구한다. 압둘라는 자신이 그녀를 구한 것에 기뻐하며 완자가 행복해지기를 희망한다. 불길에서 살아남은 완자는 “불로 세례를 받은 듯이 내면에 새로운 사람이 꿈틀거리는 느낌”(Petal 337)을 받는다. 그리고 완자는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할 기회를 준 압둘라”(Petal 337)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다. 완자의 임신은 “미래에 대한 희망”(Roos 160)을 암시하고 있으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연인관계로의 발전은 이상적인 국가의 건설을 상징한다.

완자와 비슷한 유년 시절을 보낸 『십자가 위의 악마』의 와링가는 도시 생활에 지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투이리아를 만나 소중한 사랑을 키워간다. 그들의 연인관계는 이전의 소설에서 보인 적이 없는 낭만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는 이상적인 남녀의 로맨스를 보여준다. 와링가는 가투이리아의 도움을 거절하며 스스로 독립하려는 의지로 전문 교육을 받고 엔지니어가 되는 자립심이 강한 여성이다. 온갖 차별에서 진리를 찾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헤쳐갈 수 있는 혜안을 소유한 그녀는 마침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자기 독립을 성취한다. 물론 응구기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는 그들의 관계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그들의 사랑에 담아내고 있다. 특히 와링가의 독립은 국가의 독립을 암시하는 알레고리로서, 진정한 독립은 독립할 만한 자존의 기운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준비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V. 결 론

응구기는 소설에 등장하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상위자와 하위자, 제국주의자와 식민지인, 즉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의 관계”(Nicholls 17)를 심도 있게

표상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영국 제국에 지배당해 온 식민지 케냐인들이 “제국주의가 낳은 정신과 육체의 노예화로 인해 눈멀고 귀먹은 상태”(Devil 58)였음을 증명해 보인다. 그는 식민지에 만연한 왜곡된 폭력적인 억압과 착취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제국주의자들의 통치 방식에 기인하고, 이는 어떤 식으로든 정당화될 수도 회복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응구기는 그러한 상황이 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 사이에서 악으로 가득 찬 적대적인 관계를 초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와 등을 맞대고 공존하는 사랑”(Petal 335) 또한 가능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단순히 사랑과 증오의 문제일지도 모른다고 결론 내렸다. 사랑과 증오는 인간의 심장에 쌍둥이처럼 등과 등을 맞대고 있다. 당신이 사랑하기에 또한 증오했고 당신이 증오했기에 또한 사랑했다. 당신이 사랑했던 것은 당신이 사랑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무엇을 증오해야 하는지를 결정했다. 당신이 증오했던 것은 당신이 증오했던 것과 관련해서 당신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의 가능성을 결정했다.

She decided that maybe everything was simply a matter of love and hate. Love and hate - Siamese twins - back to back in a human heart. Because you loved you also hated: and because you hated you also loved. What you loved decided what you would have to hate in relation to what you loved. What you hated decided the possibilities of what you could love in relation to that which you hated. (Petal 335)

이처럼 응구기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의 관계에서 증오와 사랑이 공존하기에 번뇌하고 방황한다. 이들을 통해 응구기는 “증오와 사랑이 걸 다르고 속 다른 채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Recalcati 160)을 논하고 있다. 공생 관계에 있는 증오와 사랑은 좁은 의미로는 한 개인이나 개인과 개인의 관계 속에 존재하지만, 넓은 의미로 확장해 보면 영국 제국과 아프리카 식민지국, 국가와 국민, 집단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관계에 두루 나타난다. 응구기는 악의 적대적인 관계가 제국, 백인, 남성의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악으로 가득 찬 증오의 감정이 발생하는 원천을 찾아 소멸시키고 증오를

사랑으로 교체해야 악의 순환 고리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증오와 함께 존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이상적인 아프리카의 미래를 대신하는 알레고리인 셈이다.

소설을 통해 응구기가 제시하는 모범적인 아프리카는 비도덕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이고 모든 억압된 이들의 독립과 자립이 가능한 사회이다. 그가 주창하는 아프리카에 존재해야 할 최종적인 윤리적 목표는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열린 제3회 국제 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선언문'의 내용과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그 선언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실로 중요하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이처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된 선언문의 내용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실천되지 못했다.

이에 응구기는 아프리카에 부재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찾고자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증오와 사랑의 이미지로 채색하여 스토리를 전개했다. 그의 소설에서 아프리카인들은 자유롭지 않고, 존중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않은 흑인이자 기구부족어 사용자였다. 그리고 그들은 제국주의에 예속된 노예와 같은 식민지인이었기에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상실된 곳에서 억압과 착취를 받으며 기본권을 침탈당한 채 고난의 삶을 영위해야 했고 법 앞에 평등하지도 않았다. 응구기는 이렇듯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작품을 썼다는 이유로 독재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으며 납치, 테러, 투옥, 망명 등 온갖 고초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응구기는 여전히 아프리카와 아프리카인들을 배경으로 삼아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자유와 평화가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과 케냐의 독립과 안정을 위해서는 민족자존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 속 등장인물들은 이러한 그의 사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응구기의 이념은 민족의식에 매몰된 국가주의 작가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외부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경험”(Recalcati 154)에 의한 것이라는

혹평을 받기도 하고 작가 또한 그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응구기는 소설 속에서 그의 유년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하여 그와 매우 닮아 있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들 사이에서 증오와 사랑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처럼 증오와 사랑을 동시에 표출하는 인물들은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응구기의 정열”(Recalcati 156)에 의해 창작되었다. 응구기는 증오와 사랑이 공존하는 곳에서는 증오가 만들어 낸 악의 고리를 사랑으로 끊어내야 밝은 미래와 희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소설 속 등장인물들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 그의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그가 소설의 등장인물로 환치되어 실제 고향을 방문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응구기는 자신의 고향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을 통해, 자신을 폄박하고 투옥하며 결국 망명하도록 만든 고향이기에 증오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고향이기에 여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응구기는 이 모든 것이 “케냐에 대한 사랑 때문”(Devil 41)이었음을 밝히며 그곳에 대한 순수하고 강한 ‘플라토닉 사랑’을 증명하고 있다.

Works Cited

- Bolat, Eren. “The Figure of Postcolonial women in Ngugi wa Thiong’o’s *Petals of Blood and A Grain of Wheat*.” Bingol U, 2014. Print.
- Choi, Moon-Gyu. *Splinters and Positions: The Aesthetics of Walter Benjamin*. Seoul: Sogang UP, 2012. Print.
[최문규. 『파편과 형세: 발터 벤야민의 미학』.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2.]
- Cook, David, and Michael Okenimkpe. *Ngugi wa Thiong’o: An Exploration of His Writings*. Oxford: James Currey, 1997. Print.
- De Man, Paul. *Allegories of Reading: Figural Language in Rousseau, Nietzsche, Rilke and Proust*. Yale UP, 1979. Print.
[폴 드 만. 『독서의 알레고리』. 이창남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 Evans, Jennifer. “Women and Resistance in Ngugi’s *Devil on the Cross*.” *Women in African Literature Today* 15(1987): 131-39. Print.
- Fanon, Franz. *Black Skin, White Masks*. London: Pluto P, 2008. Print.
- Gugler, Josef. “How Ngugi wa Thiong’o Shifted from Class Analysis to a Neo-Colonialist

- Perspective.” *The Journal of Modern African Studies* 32.2 (1994): 329-39. Print.
- Ikiddeh, Ime. “Ideology and Revolutionary Action in the Contemporary African Novel.” *Studies in The African Novel*. Ed. S. O. Asein and A. O. Ashaolu. Ibadan UP, 1986. 136-61. Print.
- Indangasi, Henry. “Ngugi’s Ideal Reader and the Postcolonial Reality.” *The Yearbook of English Studies* 27(1997): 193-200. Print.
- Kahn, Michael. *Basic Freud: Psychoanalytic Thought for the 21st Century*. US: Basic Books, 2002. Print.
[마이클 칸. 『21세기에 다시 읽는 프로이트 심리학』. 안창일 역. 서울: 학지사, 2008.]
- LaPin, Deirdre. “Women in African Literature.” *African Women South of the Sahara*. Ed. Margaret Jean Hay and Sharon Stichter. Essex: Longman, 1984. Print.
- Macharia, Keguro. “How Does a Girl Grow into a Woman?” *Girlhood in Ngugi wa Thiong’o’s The River Between*.”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43.2 (2012): 1-17. Print.
- MacQueen, John. *Allegory*. NY: Routledge, 1970. Print.
[존 맥퀸. 『알레고리』. 송낙현 역.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1980.]
- Mies, Maria. *Patriarchy &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London: Zed Books, 1998. Print.
- Mwangi, Evan. “Gender, Unreliable Oral Narration, and the Untranslated Preface in Ngugi wa Thiong’o’s *Devil on the Cross*.”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Northwestern U, 2007. 28-46. Print.
- Ngũgĩ wa Thiong’o. *A Grain of Wheat*. Oxford: Heinemann, 1967. Print.
- _____. *Devil on the Cross*. Oxford: Heinemann, 1982. Print.
- _____.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London: James Currey, 1986. Print.
- _____. *Detained: A Writer’s Prison Diary*. London: Heinemann, 1981. Print.
- _____. *Homecoming: Essays on African and Caribbean Literature, Culture, and Politics*. London: Heinemann, 1972. Print.
- _____. *Matigari*. Oxford: Heinemann, 1987. Print.
- _____. “Europhonism, Universities and the Magic Fountain: The Future of African Literature and Scholarship.” *Mid-America Alliance for African Studies Conference*. Kansas U, 1999. 1-10. Print.
- _____. *Mother, Sing for Me: People’s Theatre in Kenya*. London: Zed Books, 1989. Print.
- _____. *Moving the Center: The Struggle for Cultural Freedoms*. Oxford: James Currey, 1993. Print.
- _____. *Petals of Blood*. Oxford: Heinemann, 1977. Print.

- _____. *The River Between*. Oxford: Heinemann, 1965. Print.
- _____. *Weep Not, Child*. London: Heinemann, 1987. Print.
- _____. *Wizard of the Crow*. NY: Anchor Books, 2006. Print.
- _____. *Writers in Politics*. London: Heinemann, 1981. Print.
- Nicholls, Brendon. *Ngugi wa Thiong'o, Gender, and the Ethics of Postcolonial Reading*. NY: Routledge, 2016. Print.
- NooriBerzenji, Latef S. & Marwan Abdi. "The Image of the Africans in *Heart of Darkness* and *Things Fall Apart*." *Institute of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in Business* 5.4 (2013): 710-26. Print.
- Nwankwo. "Ngugi's *Devil on the Cross*: a Feminization of Chaos." *Chimalum Commonwealth(Dijon)*. 1987. 119-22. Print.
- O'Grady, Jean, and Eva Kushner, editors. "Allegory." *The Critical Path and Other Writings on Critical Theory, 1963-1975* 27 (2009): 171 - 77. Print.
- Ogude, James. "Allegory, Romance and the Nation: Women as Allegorical Figures in Ngugi's Novels." *Ngugi's Novels and African History: Narrating the Nation*. London: Virginia, 1999. 109 - 25. Print.
- Oerlemans, Onno. "The Animal in Allegory: From Chaucer to Gray." *Interdisciplinary Studies in Literature and Environment* 20.2 (2013): 296-317. Print.
- Park, Jong-Sung. *A reflection on post-colonialism Foucault, Fanon, Said, Baba, Spivak*. Seoul: Salim, 2014. Print.
[박중성. 『탈식민주의에 대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서울: 살림, 2014.]
- Recalcati, Massimo and Translated by Ramsey McGlazer. "Hate as a Passion of Being." *Qui Parle* 20.2 (2012): 151-82. Print.
- Roos, Bonnie. "Re-Historicizing the Conflicted Figure of Woman in Ngugi's *Petals of Blood*." *Research in African Literatures* 33.2 (2002): 154-70. Print.
- Royzman, E. B., McCauley, C. & Rozin, P. "From Plato to Putnam: Four ways to think about hat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d. Sternberg, R. Washington: In The Psychology of Hate, 2004. 3-35. Print.
- Rutere, Albert Mugambi. "Women and Patriarchal Power in the Selected Novels of Ngugi wa Thiong'o." *Department of English and Language Arts*. Morgan State U, 2009. Print.
- Sadek Sayed, "The Struggle of African Women in Selected Works by Ngugi wa Thiong'o." *European Scientific Journal February* 10.5 (2014): 169-187. Print.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Ed. Patricia Williams and Linda Chrisman. NY: Columbia UP, 1994. 66-111. Print.
- Wang, E. Chull. "9/11 from the Third-World Perspective: Mohsin Hamid's *The Reluctant*

Fundamentalist as an Allegorical Novel.”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1.4 (2015): 65-88. Print.

[왕은철. 「제3세계의 시각에서 본 9/11 -알레고리 소설로서의 ‘주저하는 근본주의자’」. 『영어영문학연구』 41.4 (2015): 65-88.]

서은주 (전북대학교/강사)
주소: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이메일: sejoo@jbnu.ac.kr

논문접수일: 2020. 12. 31 / 심사완료일: 2021. 05. 17 / 게재확정일: 2021. 05. 17